

예술에서 '기술' 과 '앎' 의 문제

글 | 정현이 _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 haema@hansung.ac.kr

서양의 예술 개념 'art'의 어원은 라틴어 'ars'인데 이 'ars'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테크네'를 번역한 말이었다. 전통적으로 서양미술은 재현의 '기술'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시각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반면 동양의 미학 전통에서는 '예'와 '술'을 분명히 구분하고 '예'를 군자가 성취해야 할 최고의 인격적 단계로까지 도덕화한 반면, 기술에 해당하는 '술'을 다분히 천시한 측면이 있다. 서양의 화가들이 이젤에 캔버스를 세워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화면을 세계에 대해 나란히 세움으로써 세계를 복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동양의 예술가들이 사용한

화선지와 붓은 이미 세계로부터 90도 꺾인 책상 공간, 즉 번역의 장의 도구들이었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도저히 채택할 수 없는 재료들이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과 예술의 다양한 만남

예술적인 '앎' 즉 '지식'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술'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는 간단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지식이 뭔가 진리와 관계된 것이고, 기술이 그것의 적용의 문제라면 예술적 지식은 '예'에 해당하고 그것의 적용은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장식미술 등에 해당할텐데, 예술 자체에도 여전히 '술'의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원근법이 예술적 기술이었듯이 동양의 운필법도 예술적 기술에 해당하고, 디지털 매체를 다루는 기술도 새로운 예술적 기법이 될 수 있다. 최근의 '하이테크 아트'나 '사이버 아트', '디지털 아트'를 보면 예술이 과학기술과 다양한 방식으로 절충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과학과 예술'이란 표현을 하면, 뭔가 '과학'과 '예술'이 상반되고 대치되거나 상보적인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는 과학이란 인식적인 것이고 예술이란 정서적인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피상적 사고의 근저에는 과학의 목적은 세계의 모든 경험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상하는 데 있는데 반해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여 전달하는 데 있다는 일반론이 자리하고 있다. 과학은 진리와 관계하고 예술은 아름다움과 관계한다는 생각도 그러한 일반론의 하나이다. 하지만 예술적인 것과 미적인 것은 특히 현대미술에 와서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 되었다. 왜냐 하면 문화는 일종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뒤샹의 소변기 '샘'이 1917년 당시에는 예술작품이 아니었지만 오늘날 예술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작품 '샘'의 물리적 속성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술을 받아들이는 제도적 맥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예술적 기능



마르셀 뒤샹 <샘>, 1917

은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측면이 크다.

예술이 이렇듯 제도적인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담론이라면 예술이 표현해내는 명제들은 모두 사이비 명제인 것일까?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참인 과학적 명제에 비해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예술적 명제는 그 진위의 파악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명제가 될 수 없는 것일까? 혹은 예술적 명제는 과학적 명제에 비해서 다분히 '원시적인' 명제인 것일까? 예술적 패러다임은 과학에 비해 '비정상적' 이고 '잠정적' 인 것일까?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대체로 과학자들은 그들이 예술을 애호하는 경우에도 예술의 인식적 기능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하이데거와 사피로의 구두그림 논쟁

물론 제아무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비행기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타고 날아갈 수는 없고, 세잔의 풍경화를 통해서 우리가 빅투아르 산에 대한 그 어떤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술이 과학과는 달리 사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이토록 명백한데 그렇다면 왜 하이데거같은 철학자는 예술이 과학과 '더불어' 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능가하여' 비로소 진리를 드러나게 한다고 하며 예술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일까?

하이데거는 반 고흐의 작품 '낡은 구두'를 예로 들었다. 농부 여인의 세계에 대해 그 어떤 과학적, 철학적 설명보다도 고흐의 이 그림 한 점이 훨씬 더 강력하게 농부여인의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하이데거 생존 당시 메이어 사피로라는 한 미술사학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가 본 고흐의 구두 그림이 언제 어디서 본 것인지를 물었다. 왜냐 하면 고흐가 그린 구두 그림이 여러 점인데, 하이데거가 책에서 언급한 그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이데거가 자신이 본 전시회를 설명한 편지를 보냈고, 사피로는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 전시회에 나온 고흐의 구두 그림은 농촌으로 가기 전 시기의 그림으로 농부 여인의 구두가 아니라 고흐 자신의 구두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그림은 고흐의 구두를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광산에서의 고달픈 목사 생활 내내 자신과 함께 해 준 자신의 구두를 그림으로써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까지 덧붙였고 이를 논문화해서 발표하였다.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회화의 진실' 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이 논의는 무척 흥미롭다.



반 고흐, <낡은 구두>, 1889

'그림', 인류 최초의 사이버 공간(?)

책의 핵심에 놓여있던 그림에 대한 설명에서 치명적인 비판을 받은 하이데거의 당시 심경이 어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은 예술적 지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도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태적으로 안고 있는 도구적 이성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은 원자력발전소가 될 수도 있고 원자폭탄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예술가가 과학자를 부러워할 수 있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예술가로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과학과는 달리, 그림은 어쩌면 인류 최초의 사이버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하얀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아이는 자기 나름의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리라. ⑤D



글쓴이는 이화여대 철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원에서 미술이론과 비평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갤러리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